R&R 24(2019) 29-54 https://doi.org/10.36365/kukirs.2019..24.29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과 그 설교학적 함의

조광현
(고려신학대학원, 조교수, 실천신학)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초록]

바울의 서신서와 내러티브를 완전히 이질적인 장르로 취급하는 현대 설교학의 일반적인 접근과는 달리,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다양한 내러티브, 즉 (1)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 (2) 바울 이야기, 그리고 (3) 데살로니가인들 이야기를 섞어 넣는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차원의 내러티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공동의 이야기로 기능하여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야기로 기능하여 주변 문화와 구별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은 내러티브를 주로 청중에게 설교적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현대 설교학적 접근에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내러티브 사용의 새로운 전망을 제공한다.

키워드: 내러티브 설교, 데살로니가전서, 내러티브, 공동 이야기, 경계, 현대 설교학

논문투고일 2019.07.16. / 심사완료일 2019.08.26. / 게재확정일 2019.08.29.

Ⅰ. 서론[1]

현대 설교학에서 바울을 설교의 모델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이다. 내터리브 설교는 현대 설교학의 '신데렐라'였다.[2] 신데렐라가 무도회에서 뭇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처럼, 내러티브 설교는 수많은 설교학자의 관심과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내러티브 설교를 설교의 주된 방법론으로 다루는 서적들이 앞다투어 출간되었고, 이 서적들은 지금도 현대 설교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3]

현대 설교학에서 일어난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성경의 비내러티브 장르,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 대한 무관심으로 귀결되었다.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열광 중에서 우리는 종종 바울을 과소평가한다."[4]라는 데이빗 바틀렛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제임스 톰슨도 바울과 그의 서신서를 현대 설교학이 "잃어버린 차원"이라고 진단한다.[5] 내러티브 설교가 발전하는 만큼 바울과 그의 서신서는 현대 설교학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

---

1 이 논문은 고려신학대학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2 이 표현은 리처드 리셔가 설교학계에서 내러티브 설교가 가장 유행하던 시기를 "Cinderella period"라고 부른 것에서 착안했다. Richard Lischer, "Preaching and the Rhetoric of Promise," *Word and World* 8, no. 1 (1988), 69를 보라.

3 예를 들어,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권위 없는 자처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Fred B. Craddock, *Overhearing the Gospel* (St. Louis: Chalice Press, 2002); Eugene L. Lowry,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Eugene L. Lowry,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Henry H. Mitchell, *Celebration and Experience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Edmund A. Steimle, Morris J. Niedenthal, and Charles L. Rice, *Preaching the Sto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4 David L. Bartlett, "Text Shaping Sermons," in *Listening to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s.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60.

5 James Thompson, *Preaching Like Paul: Homiletical Wisdom for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4.

그러나 내러티브와 서신서를 완전히 다른 장르로 구분하여 서신서에 대한 관심을 축소해 버린 현대 설교학의 관행과는 달리, 근래 바울 연구는 서신서와 내러티브의 관련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 내에 전제되고 있는 거대 내러티브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다. 벤 위더링턴은 이렇게 말한다.

> 신학과 윤리를 포괄하는 바울의 사상은, 거대 내러티브와, 그 내러티브에서 발전된 하나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 ... 그 이야기는, 아담에게서 인류가 시작된 때로부터 종말론적 아담에게서 절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와 피조물과 그것들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창조된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비극과 함께 승리를, 잃어버린 자와 함께 구원받은 이를, 처음과 함께 마지막을 포함한다. 그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행동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춘다. 바울은 역사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주장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토론하고, 약속하고, 경고한다.[7]

서신서에는 바울이 전제하는 거대 내러티브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그 거대 내러티브의 형태나 범위, 그리고 거대 내터리브를 구성하는 하부 줄거리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8] 그러나 최근 바울 연구의

---

6 설교학자들뿐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바울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는, J. R. Daniel Kirk, *Jesus Have I loved, but Paul?: A Narr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of Pauline Christianity* (Grands Rapids: Baker Academic, 2011), 1-2를 보라.

7 Ben Witherington, *Paul's Narrative Thought World: The Tapestry of Tragedy and Triump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2.

8 학자들은 거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하부 줄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제임스 던은 (1)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이야기, (2) 이스라엘의 이야기, (3) 예수의 이야기, (4) 바울 자신의 이야기, (5) 바울보다 앞서서 믿어 교회를 형성한 자들의 이야기로 분류한다.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박문재 역, 『바울 신학』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61. 마이클 버드는 거대 서사가 (1) 하나님과 창조, (2) 아담과 그리스도, (3) 아브라함, (4) 이스라엘, (5) 예수, (6) 교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한다. Michael F. Bird, *Introducing Paul: The Man, His Mission, and His Messag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8), 38.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서신서에 내포된 거대 내러티브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9]

거대 내러티브와 아울러, 서신서에는 바울과 수신자들 사이에 전제된 내러티브도 포함되어 있다. 각 서신서는 바울과 수신자들 사이에 목회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신서는 서신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과 수신자들 사이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바울 서신의 본문 아래에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바울 자신, 그의 삶과 사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다음은, 바울의 사역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 바울과 그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10]

이처럼, 서신서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내러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이클 고먼은 바울 서신서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내러티브적 서신"[11]이라고 하였다. 바울 서신서에 내러티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 연구는 바울이 특별히 (1)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러티브를 탐구하고, (2) 그 내러티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3)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이 현대 설교학에 주는 몇 가지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12]

---

9 예를 들어, Witherington, *Paul's Narrative Thought World*; Richard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2002); Michael J. Gorman,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2001); N. T. Wright, *Paul in Fresh Perspective*, 손돈호 역, 『톰 라이트의 바울: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바울 신학』 (서울: 죠이선교회, 2012); Bruce W. Longenecker, ed. *Narrative Dynamics in Pau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onx Press, 2002).

10 Bird, *Introducing Paul*, 38.

11 Michael J. Gorman, *Apostle of the Crucified Lord: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Paul and His Letter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2004), 75.

12 바울의 서신서를 설교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가, 즉 바울의 서신서를 설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Kwang-hyun Cho, *Paul's Community Formation Preaching in 1 Thessalonians: An Alternative to the New Homiletic* (Bern: Peter Lang Pub., 2018),

II. 본론

1. 바울이 사용하는 내러티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용하는 내러티브의 종류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서신의 서두(1:1)이다. 바울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서신의 서두보다 훨씬 확장한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두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내러티브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한다.[13] 그들은 (1)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2)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3)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이다. 바울은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차원의 내러티브를 데살로니가전서에 엮어 넣는다.

(1)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는 세 가지 사건, 즉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이 중심이 된다. 이 점이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곳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1:10)"이라는 표현에서다. 바울은 각 사건의 줄거리를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결하고 압축된 어구를 사용하여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14]를 암시한다.

바울의 이 암시 속에는 하나님이 명시적인 등장인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그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이기도 하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이야기(1:9상)와 그들을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아들인 이야기(1:9하)에

24-38을 보라.

13 John W. Simpson, "Shaped by the Stories: Narrative in 1 Thessalonians," *Asbury Theological Journal* 53, no. 2 (1998), 16.

14 세 가지 차원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를 편의상 '이야기'로 이름 붙인다. 이 논문에서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의미적 차이는 없다.

긴밀하게 이어서 배치한다. 이 배치는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 이야기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 즉 선교적 설교였다는 점을 반영한다.[15]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4:14)"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의 핵심 사건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암시한다. 여기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어구를 덧붙인다. 이 일인칭 복수는 바울 일행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도 포함한다. 이 어구를 통해, 바울은 자신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 근거를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이다.[16]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5:10)"라는 표현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암시들과 차이가 없지만, 예수가 당한 죽음의 목적을 덧붙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예수가 당한 죽음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은 이곳이 유일하다. 그러나 죽음의 목적 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없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17]

예수의 재림 이야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용하는 내러티브 가운데 유일한 미래 이야기다. 앞서 1장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과거 이야기와 재림에 대한 미래 이야기를 긴밀하게 연결한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

15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에 포함된 어구들이 바울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선교적 설교의 전형적 표현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Ernest Bes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London: Black, 1977), 85-87; F. F. Bruce, *1 and 2 Thessalonians* (Waco: Word Books, 1982), 17-18; Earl J. Richard, *First and Second Thesslonians* (Collegeville: Litugical Press, 1995), 53-58을 보라.

16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교회에서 전수되어 온 신앙고백의 전형적인 도입 어구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Ivan Havener, "The Pre-Pauline Christological Credal Formulae of 1 Thessalonian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eminar Papers* 20 (1981), 111을 보라. 이 견해가 옳다면, 이 표현은 바울과 데살로니가인들 뿐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던 다른 교회들과의 공동 근거도 강조하는 셈이 된다.

17 Bruce, *1 and 2 Thessalonians*, 114.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예수의 재림 이야기는 '파루시아(παρουσία)'라는 단어에서 여러 번 암시된다(1:10; 2:19; 3:13; 4:15; 5:23).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는 황제와 같이 권위있는 존재의 공식적 방문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되었다. 이 단어를 통해, 데살로니가인들은 재림 이야기에서 예수가 권위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18]

그러나 예수의 재림 이야기가 헬레니즘적 색채로만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재림 이야기를 암시하기 위해 "주의 날(5:2)"이라는 종말론적 개념을 구약에서 빌어온다. 구약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신원하기 위해 오시는 미래의 어떤 때를 가리킨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였으므로, 주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된다.[19] 바울은 구약적 배경을 지닌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예수의 재림 이야기로 갱신하여 사용한다.

바울이 구약에 뿌리를 둔 종말론적 개념을 갱신하여 만들어낸 재림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불신자들에게 주의 날은 기대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하므로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5:2). 그러나 신자들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1:10)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5:9). 바울은 이 종말론적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바울은 미래 이야기의 기본적인 플롯만 말한다.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인들이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5:2)"이다.

바울은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예수 재림 이야기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추가해 설명한다(4:13-15). 왜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미 죽은 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20] 데살

18 정치적 함의를 지닌 헬레니즘적 '파루시아' 개념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연관성이 강조될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다른 단어, 즉 '아포칼립시스(ἀποκάλυψις)'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Victor Paul Furnish, *1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76을 보라.

19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주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등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로니가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분명하다.

(2) 바울 내러티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즉 데살로니가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갔던 인물들을 등장인물로 하는 내러티브를 포함 시킨다. 바울이 차지하는 지도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이 이야기를 바울 내러티브로 부를 것이다.

바울 내러티브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21]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데살로니가인들이 직접 경험해서 "아는 바(1:5)"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헛되지 않았다(2:1)"라고 평가하는데, 이 평가는 바울만의 평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도 공유하는 평가이기도 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2:1)"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너희가 안다(οἴδατε)"라는 표현은 바울의 이야기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2:2; 2:5; 2:10; 2:11; 3:3; 3:4; 4:2; 5:2), 이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인들의 기억에 호소해서 암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가장 세부적인 바울 이야기는 2장 5-12절에 나타나는데,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울은 금전적 이익이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유순하게 양육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아버지와 같이 존경받을 행위를 하였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장 자세한 바울 이야기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건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두를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수신자들의 기억에 근거해서 암시한다. 바울은

---

20 이미 죽은 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유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Jeffrey A. D. Weima, *1-2 Thessalonians* (Grand Rapids: Baker Acamemic, 2014), 310-13을 보라.

21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일어난 자신의 이야기도 포함한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2:17-18), 대신 디모데를 보냈고(3:1-3),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인들의 상황 때문에 안심한다는(3:6-8) 내용이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너희도 알거니와(2:5)"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2:11)"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한다.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라(2:9)"라고 요구하며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의 "증인(2:10)"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수신자들의 기억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데살로니가인들 내러티브

바울이 사용하는 데살로니가인들에 관한 내러티브는 그들의 회심과 그들이 당하는 환난에 집중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바울이 말한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와 겹쳐서 나타난다(1:9-10). 그 이유는 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들의 개종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의 개종 이야기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1:9)"라고 간략히 서술한다. 그러나 개종 이야기의 간략한 표현과는 달리, 실제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제의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에서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료 시민들과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22]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개종은 그들에게 환난을 가져다주었다. 그들이 겪은 환난의 성격에 대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암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1:6). 바울과 수신자들 사이에 그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말허베는 이 환난을 과거에서 단절할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정서적인 고통으로 이해하지만,[23] 데살로니가전서 곳곳에 암시된 개종자들에 대한 적대감(2:2; 2:14-15)은 이 환난이 사회적인 압력과 배척을 포함하는 공개적인 곤경이라고 보는 편을 지지한다.[24] 그들이 당하는 환난 이야기는 그들이 바울 자신과 주를 "본받는 자(1:6)"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22 John M. G. Barclay, "Conflict in Thessalonica,"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5, no. 3 (1993), 514.

23 Abraham J. Malherbe, *Paul and the Thessalonians: The Philosophic Tradition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48.

24 Furnish, *1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46-47.

2. 바울이 사용하는 내러티브의 역할

(1) 공동체 내의 공동의 이야기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세 가지 내러티브가 자신뿐 아니라 수신자들 모두의 공동 이야기라는 측면을 부각한다.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가 자신이 선교 사역을 통해 전해 준 이야기지만 이제는 데살로니가인들도 받아들인 공동의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공동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 정체성을 창조한다. 공동체는 공유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연합한다.[25] 바울은 이방인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1:4)" 자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를 반복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공동 이야기로 기능하기 원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의 바람처럼 이 공동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고 반복하여 기억한다면,[26] 공동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그들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를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 이야기로 만들어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눈치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세부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대신 암시한다. 이 암시는 수신자들이 이미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 정보 전달보다 다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암시를 사용한다. 이 반복을 통해, 이방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내러티브의 압력 가운데 살아가는 수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는 더 선명하고 중심된 공동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뿐 아니라, 바울 내러티브도 공동의 이야기로 기능한

---

25 Stanley J. Grenz, "Ecclei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55.

26 기억이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는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i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53-71을 보라.

다. 바울 내러티브는 수신자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은 바울 이야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주 등장했다. 제프리 와이마에 따르면, 이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바울의 전략이다.[27] 물론 수신자들의 기억은 바울 내러티브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이것 이상이다.

바울이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그들 사이의 기억을 환기하는 이유는 자신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역동적인 교류를 상기시켜 자신과 그들 사이를 더 밀접하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 밀접한 관계 위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러티브를 수신자들이 본받아 자신의 이야기가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의 이야기가 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를 바울과 데살로니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계층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지만,[28] 바울의 요구는 자신의 권위가 아닌 예수의 권위에 근거해 있다(1:6). 그러므로 바울 내러티브의 줄거리가 예수 내러티브의 줄거리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바울 내러티브는 수신자들에게 공동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내러티브를 통해 수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바는 "바울 닮기"가 아니라 "예수 닮기"였다.[29] 바울은 자신의 내러티브가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 이야기로 기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했다.

바울이 포함시킨 데살로니가인들 내러티브 또한 공동 이야기로 기능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여 개종했다. 그러므로 개종 이야기는 그들이 모두 공유하는 이야기이다. 또한, 그들의 개종은 그들 모두에게 환난을 가져왔다. 환난 이야기 또한 그들에게는 공동 이야기이다. 환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

---

27 Weima, *1-2 Thessalonians*, 153.

28 예를 들어, Elizabeth A. Castelli, *Imitating Paul: A Discourse of Pow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29 Marion Carson, "For Now We Live: A Study of Paul's Pastoral Leadership in 1 Thessalonians," *Themelios* 30, no. 3 (2005), 32.

하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 아니다. 주변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공동체는 그 적대적인 경험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의 정체성이 강화된다. 환난 이야기는 수신자들에게 외부적 압력을 인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내부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했을 것이다.[30]

환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인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이야기를 넘어, 바울과 공유하는 이야기, 심지어 그들의 주와 공유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바울과 예수와 공유된 그들의 환난 이야기는 주변 사회의 평판처럼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울과 예수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을 증명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환난 이야기를 자신과 예수와 공유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데이빗 드실바의 표현을 빌자면 "대안적인 평판의 법정"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31] 외부 사회의 부정적인 평판과는 다른 긍정적인 평판을 강화함으로써, 바울은 사회적인 압력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세우는 시도를 한다.

(2)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야기

바울이 사용하는 내러티브는 개종한 데살로니가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두 부류, 즉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머지 사람들(1:9)로 나눈다.

하나님과 예수의 내러티브 중 구분하는 특징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의 재림이 "밤"과 "어두움"에 속한 그들(5:5)에게는 "도둑같이" 이르러(5:2) 피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5:3). 그러나 "빛"과 "낮"에 속한 우리(5:5)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5:4)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5:9).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30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96.

31 David A.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Unlocking New Testament Cultur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50.

모르는 자,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원론이 명백히 드러난다.[32]

바울이 내러티브로 개종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암시를 통해 내러티브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암시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자는 내러티브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암시만 해도 세부 줄거리를 이해하나, 외부자는 내러티브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암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웨인 믹스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는 확실히 자신들과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경계를 강하게 인식한다."[33]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상기시키는 암시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경계로 기능한다.

바울 내러티브와 데살로니가인들의 내러티브도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내부자는 바울 내러티브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나 외부자는 그렇지 않다. 내부자는 개종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으나 외부자는 그렇지 않다. 내부자는 환난을 당하나 외부자는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신자들 사이에 공동 정체성을 제공하는 공동 이야기의 역할을 하지만 외부자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경계의 기능도 한다.[34] 데이빗 드실바는 "기독교 운동은 그 운동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헌신과,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과 그 공동체 밖의 세계에 속하는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는 헌신 사이에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한다."라고 적절하게 평가한다.[35]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해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경계를 긋고 있다.

---

32 Wayne A. Meeks, "Social Functions of Apocalyptic Language in Pauline Christianity," in *Apocalypticism in the Mediterranean World and the near East*, ed. David Hellholm (Tübingen: J. C. B. Mohr, 1983), 689.

33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92.

34 바울의 내러티브가 '상징적 경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광현, "상징적 경계를 세우는 바울 설교,"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44권(2017), 199-205를 보라.

35 David A.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225-26.

3.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에 따른 설교학적 함의

성경 본문의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했던 전통적인 설교학과는 달리, 현대 설교학은 청중 개인에게 설교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36] 현대 설교학에서 내러티브 설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러티브 설교는 현대 설교학이 추구하는 바로 그 목표, 즉 청중에게 설교적 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을 호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찰스 캠펠은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을 경험적 차원에서 호소한다. 내러티브 설교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의해 그 가치가 입증된다."라고 말한다.[37]

현대 설교학이 내러티브를 청중에게 설교적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하여 이해한 것과는 달리, 바울은 공동체적인 전망 속에서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내러티브가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 이야기로 기능하여 그 공동 이야기로 공동 정체성을 형성하기 원했다. 또한, 그 공동 이야기를 반복하여 공동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시도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은 설교자들에게 내러티브 사용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대 교회에는 공동 이야기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급하다.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세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 정체성이 형성된 교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38] 월터 부르그만은 현대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고 평가한다.[39] C. H. 다드는 선교적 상황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케리그마'와 교회 안에서 윤리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인 '디다케'를 구분한 적이 있다.[40] 그러나 설교학계에도 크게 영향을

---

36 조광현, "전통적인 설교학과 차별성으로서 '신'설교학에 대한 비평적 분석: '더 새로운' 설교학을 위한 출발점,"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46권(2018), 201-04.

37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1997), 122.

38 티모시 켈러는 후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내러티브를 설명하고 있다. Timothy Keller, *Preaching: Communicating Faith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Viking, 2015), 129-33을 보라.

39 Walter Brueggemann, *Biblical Perspectives on Evangelism: Living in a Three-Storied Univers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90.

40 C. H. Dodd,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New York: Harper,

미친 다드의 이 날카로운 구별[41]은 복음과 경쟁하는 다양한 내러티브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설교자는 바울의 본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 즉 복음을 설교하여 이 이야기가 교회의 공동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바울의 내러티브는 공동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야기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은 설교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가르쳐 준다. 최근 일어나는 미셔널 처치 운동[42]의 일각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43]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가 없이는 대항 문화적인 성격을 띠는 교회가 생존하기는 불가능하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누구든지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주변 문화와 다르기를 바라야지 기독교가 주변 문화와 뒤섞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능동적으로 '경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관리'해야 한다. 경계가 없으면 공동체는 사라진다.[44]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교에서도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객이 항상 옳다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주변 문화로부터 호감을 얻어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는 현대 설교자들은 이 사실을 더욱

1964), 7.

41 데이빗 버트릭은 다드의 책이 나온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책과 그의 캐리그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하지 않는 설교학 서적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David Buttrick, "Proclamation," in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eds. William H. Willimon and Richard Lisch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385.

42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위해서는 eds. Stetzer and David Putm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59-71을 보라.

43 예를 들어,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Innovation and Mission for the 21st-Century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3), 68.

44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96.

기억해야 한다. 이 압력에 굴복하여 경계를 해체하고 주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러티브만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청중을 격려할 수는 있으나 결코 회심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45] 그러나 설교자가 청중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그들을 회심시켜, 즉 경계를 통과하도록 하여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형성하는 것이다.[46] 이를 위해 설교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변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포함하는 거대 내러티브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는 설교자들에게 전체 성경에 근거한 내러티브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논의 가운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 이유는 현대 설교학이 내러티브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설교의 형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톰슨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 각각의 설교가 문제로부터 해결로 가는 플롯으로 취급될 때, 전체 설교 사역은 텔레비전 시리즈의 특징을 가진다. 매주 텔레비전 드라마가 미해결에서 해결로 가는 것처럼, 각각의 설교도 하나의 플롯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미니시리즈가 아니라 단편물이다. 설교가 이런 관점으로 전개될 때, 설교자가 각 부분을 다루면서 더 큰 플롯을 염두에 두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47]

각각의 설교가 각각 독립된 내러티브가 아니라 모든 설교는 성경의 거대 내러티브에 근거한 통합된 시리즈물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

45 John W. Wright, *Telling God's Sto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7), 38.

46 마이클 고먼은 바울의 공동체를 "배타주의자-포용주의자" 공동체라고 부른다. 바울의 공동체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들에게 충성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배타주의자들의 공동체지만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포용한다는 의미에서는 포용주의자들의 공동체이다. Gorman, *Cruciformity*, 366.

47 Thompson, *Preaching Like Paul*, 11.

내러티브 설교는 효과적인 설교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거대 내러티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 중에 일어났던 자신의 내러티브와 데살로니가인들의 내러티브를 활용했다는 점은 설교자들에게 설교가 목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깨닫도록 한다. 이 당연한 듯이 보이는 연관성, 즉 설교와 목회와의 긴밀한 관계는 내러티브를 설교를 비롯한 현대 설교학이 설교의 기술적인 측면, 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집중하면서 간과해 왔다.[48] 그러나 설교는 목회와 분리될 수 없고 설교는 목회적인 정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행위이다. 그래서 해돈 로빈슨은 설교자가 관여해야 하는 세계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세계, 즉 '성경의 세계'와 '현대의 세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세상을 더 추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은 세계"이다.[49] 그 특정한 세상 속에서 목회하는 설교자는 그 어떤 설교자들보다 그 특정한 청중을 잘 아는 설교자로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비록 막대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송 설교자들의 설교가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시대이지만, 설교자와 청중 간의 목회적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방송 설교자들이 넘볼 수 없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목회를 통해 일어난 이야기를 설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친다. 보통 목회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설교에서 예화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바울의 본은 목회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예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목회를 통해 발생한 이야기들은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그리고 청중과 청중 사이에서 친밀감을 높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를 통해 생성된 이야기들이 공동체의 공동 이야기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들을 때,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

48 Michael Pasquarello, *Sacred Rhetoric: Preaching as a Theological and Pastoral Practice of the Church*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2005), 6-9.

49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박영호 역, 『강해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87.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 내러티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 이야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설교자의 인격과 사역이 청중이 본받을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친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 내러티브를 통해 바울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 내러티브를 통해 끝내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가 되었다. 필립 브룩스는 설교를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라고 말했다.[50] 정말 설교와 설교자의 인격이 구분될 수 없다면, 설교자의 인격은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돈 로빈슨은 "우리의 청중은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을 통해 우리를 알고, 신뢰하고, 본다. 모범은 어떤 설교학적 기술보다 더 큰 일을 해낸다."라고 말한다.[51] 기독교와 설교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지금, 설교자들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바른 삶과 바른 목회로 설교하도록 더욱 애써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내러티브를 공동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는 설교에 있어서 반복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킨다. 매일 수많은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인기가 없다.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길든 청중의 압력 앞에 노출된 설교자들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현대 설교학도 청중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설교의 생동감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52] 현대 설교에서 미덕은 반복이 아니라 창의성과 독창성이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의 청중이, 설교자들이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과 성경의 주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 사회는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이행했다. 후기 기독교 사회의 청중은 그들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성경을 제대로 알지

---

50 Phillips Brooks, *Lectures on Preaching* (New York: E.P. Dutton, 1877), 189.

51 Haddon W. Robinson, "Competing with the Communication King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 Haddon Robinson on Biblical Preaching*, e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112.

52 예를 들어 Craddock, *Overhearing the Gospel*을 보라.

못한다.[53]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중에게 반복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청중이 성경 내용을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설교에는 반복이 필요하다. 바울뿐 아니라, 이른 시기의 기독교 설교를 반영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구원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54] 교회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공동 정체성, 특히 그 공동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 정체성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더욱 강화한다. 설교학은 퇴색해져 버린 반복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바울의 서신서와 내러티브를 완전히 이질적인 장르로 취급하는 현대 설교학의 일반적인 접근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전서 안에는 바울이 포함한 다양한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바울은 이 내러티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공동의 이야기로 기능하여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야기로 기능하여 주변 문화와 구별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은 내러티브를 주로 청중에게 설교적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현대 설교학적 접근에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내러티브 사용의 새로운 전망을 제공한다.

---

53 Craig A. Loscalzo, *Apologetic Preaching: Proclaiming Christ to a Postmodern Worl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24.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기독교 사회였던 적이 없으므로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교회 안의 청중이 이전 시대보다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후기 기독교 사회와 비슷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4 Robert Webber, *Ancient-Future Worship: Proclaiming and Enacting God's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47.

[참고문헌]

Barclay, John M. G. "Conflict in Thessalonica."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5 no. 3 (1993): 512-530.

Bartlett, David L. "Text Shaping Sermons." In *Listening to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Best, Ernest. *A Commentary 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London: Black, 1977.

Brooks, Phillips. *Lectures on Preaching*. New York: E.P. Dutton, 1877.

Bruce, F. F. *1 and 2 Thessalonians*. Waco: Word Books, 1982.

Brueggemann, Walter. *Biblical Perspectives on Evangelism: Living in a Three-Storied Univers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Buttrick, David. "Proclamation." In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ed. William H. Willimon and Richard Lisch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Campbell, Charles 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1997.

Carson, Marion. "For Now We Live: A Study of Paul's Pastoral Leadership in 1 Thessalonians." *Themelios* 30, no. 3 (2005): 23-41.

Castelli, Elizabeth A. *Imitating Paul: A Discourse of Pow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권위 없는 자처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_____. *Overhearing the Gospel.* St. Louis: Chalice Press, 2002.

deSilva, David 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Unlocking New Testament Cultur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Dodd, C. H.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New York: Harper, 1964.

Dunn, James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박문재 역. 『바울 신학』.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Innovation and Mission for the 21st-Century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3.

Gorman, Michael J. *Apostle of the Crucified Lord: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Paul and His Letter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2004.

_____.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2001.

Grenz, Stanley J. "Ecclei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i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Havener, Ivan. "The Pre-Pauline Christological Credal Formulae of 1 Thessalonian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eminar Papers*, no. 20 (1981): 105-128.

Hays, Richard.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2002.

Keller, Timothy. *Preaching: Communicating Faith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Viking, 2015.

Kirk, J. R. Daniel. *Jesus Have I loved, but Paul?: A Narr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of Puline Christianity*. Grands Rapids: Baker Academic, 2011.

Kwang-hyun, Cho. *Paul's Community Formation Preaching in 1 Thessalonians: An Alternative to the New Homiletic*. Bern: Peter Lang Pub,, 2018.

Lischer, Richard. "Preaching and the Rhetoric of Promise." *Word and World* 8, no. 1 (1988): 66-79.

Longenecker, Bruce W., ed. *Narrative Dynamics in Pau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onx Press, 2002.

Loscalzo, Craig A. *Apologetic Preaching: Proclaiming Christ to a Postmodern Worl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Lowry, Eugene L.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_____.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_____.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_____.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Malherbe, Abraham J. *Paul and the Thessalonians: The Philosophic Tradition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Meeks, Wayne A. "Social Functions of Apocalyptic Language in Pauline Christianity." In *Apocalypticism in the Mediterranean World and the near East*, ed. David Hellholm. Tübingen: J. C. B. Mohr, 1983.

_____.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Mitchell, Henry H. *Celebration and Experience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Richard, Earl.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5.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박영호 역. 『강해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_____. "Competing with the Communication King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 Haddon Robinson on Biblical Preaching, e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Simpson, John W. "Shaped by the Stories: Narrative in 1 Thessalonians." *Asbury Theological Journal* 53, no. 2 (1998): 15-25.

Thompson, James. *Preaching Like Paul: Homiletical Wisdom for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Webber, Robert. *Ancient-Future Worship: Proclaiming and Enacting God's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Weima, Jeffrey A. D. *1-2 Thessalon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Witherington, Ben. *Paul's Narrative Thought World: The Tapestry of Tragedy and Triump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Wright, John W. *Telling God's Story: Narrative Preaching for Christian Format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7.

Wright, N. T. *Paul in Fresh Perspective*. 손돈호 역. 『톰 라이트의 바울: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바울 신학』. 서울: 죠이선교회, 2012.

조광현. "상징적 경계를 세우는 바울 설교."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44권(2017), 192-219.

조광현. "전통적인 설교학과 차별성으로서 '신'설교학에 대한 비평적 분석: '더 새로운' 설교학을 위한 출발점."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46권(2018), 195-221.

[Abstract]

Paul's Use of Narratives and It's Homiletical Implications

Kwang Hyun Cho
(Korea Theological Seminary, Assistant Professor, Practical Theology)

Whil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Paul's letters and narrative texts has been generally proposed in contemporary homiletics, Paul in 1 Thessalonians weaved different levels of narratives-(1) the story of God and Jesus, (2) Paul's own story, and (3) the story of Thessalonians. Paul utilized these three levels of narratives as a collective story for promoting a common identity in the community and as a boundary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for constructing a distinct community. Paul's use of narratives gives an alternative view for the contemporary homiletics which mainly understands narratives as a form for facilitating an experiential event in preaching. Moreover,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use of narratives for preachers who undertake community formation.

Key Words: Narrative Preaching, 1 Thessalonians, Narrative, Collective Story, Boundary, Contemporary Homiletics